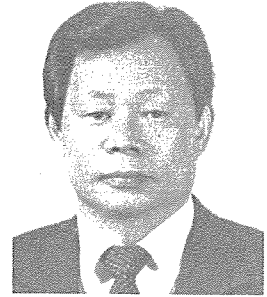


# 市場개방에 대처 國際수준급 담배개발



李 種 華  
(韓國人蔘煙草연구소 소장)

## 韓國人蔘煙草연구소

市場開放압력등 어려웠던 지난 한해를 보내고 科學技術의 혁신으로 國家經濟發展을 더욱 加速化하여 2000년대를 향한 福祉國家의 기틀을 다질 희망찬 丁卯年 새해를 맞이하였다.

지난 해는 基礎科學분야의 연구강화와 應用 분야 연구결과의 실용화에 역점을 두고 신제품 개발, 高麗人蔘의 과학적인 효능입증과 遺傳育種연구의 체계확립을 위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성실하게 所任을 완수한 한 해였다.

올해에도 우리 연구소는 정착된 研究基盤 위에서 지금까지의 연구경험을 토대로 人蔘과 담배의 生産性향상, 제품의 國際化 對應연구, 기초과학분야의 강화 등에 연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 人蔘분야 16과제 ▲ 담배 분야 19과제 ▲ 인삼과 담배 공통분야 1과제 등 모두 36과제에 대한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나갈 계획이다.

올해에 추진할 연구분야별 主要課題는 다음과 같다.

**人蔘栽培분야**=原料蔘의 生産原價節減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拮抗微生物의 토양내 活性化 연구를 비롯하여 양질·다수·내병성 신품종의 육성 및 原料蔘의 內空·內白防除 연구, 생리장해원인 및 防除法 究明과 農用抗生劑의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人蔘製品분야**=東西洋人의 기호에 영합하는

건강식품을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服用과 휴대가 간편한 스포츠 및 레저용제품의 개발로 88서울올림픽에 대비하고 濃縮固形製劑개발, 紅蔘 영양강장제품을 개발하여 국제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人蔘의 藥理效能분야**=새로운 活性物質인 폴린계 및 알칼로이드성분의 분리 등 非:사포닌계 유효성분의 抗癌效果和 高血糖症에 미치는 인삼의 약리효능을 과학화하여 종래 건강식품의 차원을 넘어 치료제로서의 활용을 제고할 계획이다.

**담배耕作분야**=일담배의 생산성 향상 및 香喫味種의 수입대체품종개발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優良品種의 육성과 低糖 및 低니코틴 일담배의 栽培技術개발로 일담배의 생산체제를 質産體制로 전환할 계획이며, 省力營農機資材의 개발연구에도 정진하여 담배 경작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



담배製造분야=제품의 생산원가 절감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수준의 향상으로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화·고도화할 것에 대비하여 選好製品의 개발과 모든 愛煙家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케밀리 블랜드타입의 원숙하고 맛이 순한 담배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담배香料 및 材料品분야=담배 加香料의 국산화연구와 有害成分을 선택적으로 吸着할 수 있는 필터와 助燃劑 등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계획이다.

첨단과학분야와 植物遺傳工學분야=유전인자의 再組合技術개발과 무공해 미생물 농약 및 인삼탱크배양기술개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올해에는 우선 人蔘과 담배 新品種育成을 위한 식물의 세포 및 조직배양기술개발과 外部 優良遺傳因자의 植物体内導入을 위한 운반체개발에 치중할 계획이다.

한편, 研究結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연구업무의 電算化작업을 행정업무의 전산화 작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능률향상을 위하여 職員福祉向上과 研究風土造成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에도 이상과 같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山積되어 있으며, 이들 과제들은 전매사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소의 연구사



업은 매우 막중한 것이다.

특히 금년에는 독점의 요람속에서 安住하던 전매사업이 국내시장개방에 따른 各國 外産담배와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專賣廳이 專賣公社로 체제를 개편, 첫 출발하는 해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당초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작년 9월 洋담배의 早期市販에도 높은 國民意識水準의 발로와 나라를 사랑하는 충정어린 外産담배 거부운동으로 우리 담배의 選好에는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않았지만 無限定 이런 상태가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본 연구소는 전매사업을 뒷받침하는 특수 연구기관으로서 自國의 이익을 위해서는 理念을 초월하는 미묘한 국제무역관계를 인식하고 우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外産담배와 당당히 맞서 겨룰 수 있는 국제수준급 담배제품개발에 심혈을 경주하여 나갈 계획이다.

